

은행 결제방법을 통하여 보는 북한의 기업관리

전경주 | 북한대학원대학교 | jhonus78@gmail.com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 공장들에 원자재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확립하고, 소비품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¹⁾ 이것은 코로나19로 모든 무역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필수품의 생산을 늘려 이에 대한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과 판매 등 은행을 통한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계좌(돈자리) 개설,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며 고찰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북한의 기업 간 거래는 은행에 계좌(돈자리)²⁾를 개설한 후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돈자리 개설부터 살펴보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무현금 결제와 현금 결제로 구분하여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1) 『노동신문』(2021. 9. 3).

2) 본고에서는 북한의 은행 결제 서류들을 그대로 고찰하는 의미에서 '계좌'를 북한식으로 '돈자리'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I. 돈자리(계좌) 개설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 통제를 받게 된다. 기업 조직이 승인되면 기업은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게 되는데, 사전에 필요한 공정이 있게 된다. 그것은 기관등록증 발급과 기업 인감의 마련 그리고 무역활동을 하는 기관일 때 이용되는 영업허가증의 발급이다. 새로 조직되는 기업은 사회안전성을 경유하여 기관등록 신청문건을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후 인민위원회로부터 기관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³⁾ 기업의 인감도 사회안전성의 인감 승인을 받아야 제작할 수 있다. 기관등록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허가해 주는 문건이며, 기업 인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수단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장과는 달리, 각급 관청·공장·기업의 명칭이 새겨진 도장과 부기 책임자 직인은 반드시 사회안전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⁴⁾ 지정된 곳에서만 제작해야 한다. 북한에서 개별 경제 단위가 대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⁵⁾ 영업허가증은 무역 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기업은 돈자리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돈자리 개설 승인 신청서, 기관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사본, 인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의 승인을 받아 기업 돈자리를 개설한다.⁶⁾

II.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

기업들에서 자금 결제는 단순히 돈자리를 통한 자금의 환치가 아니라 기업들 사이의 물자 거래를 재정적으로 장악하고 계획 수행과정을 통제하는 기본 수단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기업이 은행에 있는 예금 돈자리(시좌 돈자리 또는 시좌 예금 돈자리⁷⁾)라고도 하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때에 따라 아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예도 있음)에 화폐 자금을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특히 무현금 결제⁸⁾는 기업들 사이의 경영활동 내용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3) 「기업소법」, 제15-16조, 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 보충.

4) 『조선일보』, 「[NK 리포트] 북한 주민들 공식 업무엔 꼭 도장 사용」, 2001. 6. 17.

5) 아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년 8월, p.184.

6) 「화폐유통법」, 제30-31조,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 보충.

7)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시좌 예금 돈자리는 예금자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임의의 시기에 돈을 맡기거나 찾는 돈 거래를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산자리'라고 밝히고 있다.

8) 「재정금융사전」에서는 '무현금 결제는 은행에 있는 예금 돈자리를 통하여 환치의 방법으로 문건상으로만 진행되는 결제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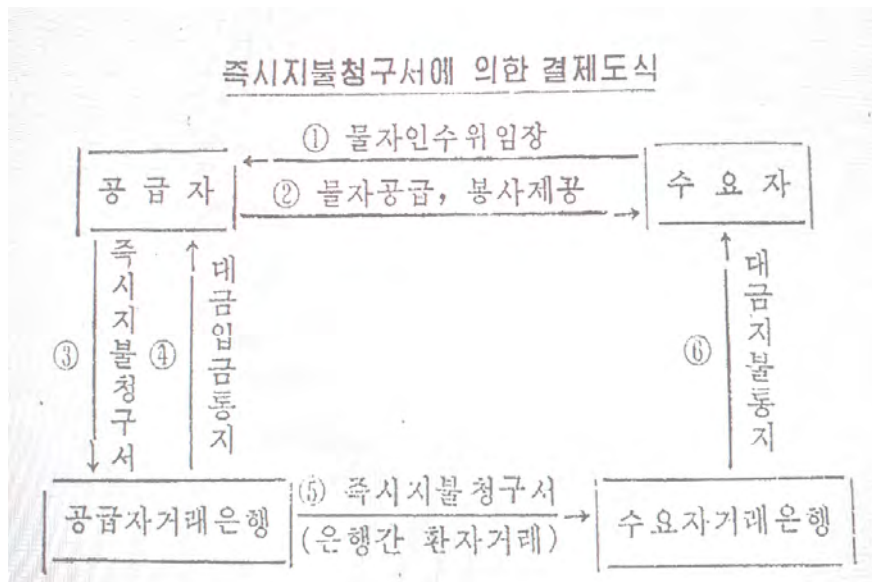
무현금 결제는 기업들 사이의 상품유통과 서비스에 따르는 화폐 자금의 거래, 국가 예산과의 결제, 은행과의 대부 거래 등에 적용된다. 무현금 결제 형태에는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 무현금 행표에 의한 결제, 신용장에 의한 결제 등의 결제 형태가 있다.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이전의 계획경제 시스템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던 무현금 결제방식의 하나였다.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선 물자 공급, 후 대금 청구 방식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 또는 요금을 청구하는 결제방식이다.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방식은 주로 계획에 따르는 물자 대금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담보하는 물자인수위임장⁹⁾을 받고 물자를 보낸다.

공급자는 물자를 보낸 후 즉시 지불 청구서를 자기의 거래 은행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공급자의 거래 은행은 수요자의 거래 은행에 해당 서류들을 보내 대금 결제 처리를 한다.

[그림 1]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의 도식



자료: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998.

9) 물자인수위임장은 물자를 받으러 가는 수요자 기업의 사람이 공급자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수요자 기업의 대금 지불을 담보하는 문서로도 통용된다. 물자인수위임장에는 반드시 수요자 기업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증빙서류의 효력이 있게 된다.

하지만 수요자 기업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공급자 기업은 물자만 공급하고 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게 되며, 계획경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III.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는 200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결제방식이며 즉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를 일정 정도 보완하기 위한 결제방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는 은행이 수요자 기업의 지급 능력에 맞게 즉시 지불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에 반영된 자금이 수요자 기업의 돈자리에서 먼저 차감되도록 하는 결제방법이다.¹⁰⁾ 즉시 지불서는 수요자 기업이 작성하며 1, 2, 3호로 되어있는데 보통 1호는 은행 전표로, 2호는 공급자 기업의 입금 통지서로, 3호는 작성자인 수요자 기업의 출금 통지서로 이용된다. 수요자 기업은 즉시 지불서에 공급자 기관과 출금액, 거래내용을 밝혀 기관 수요자 기업의 인감 도장을 찍어 수요자 기업 거래 은행에 제시한다. 수요자 거래 은행은 수요자 기업의 잔액 상태와 계획에 예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금액만큼 수요자의 내화 기본 돈자리에서 자금을 차감(*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에서는 돈자리 차감 시 수요자의 기본 돈자리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요자의 보조 돈자리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함)하고 제출한 즉시 지불서에 은행 확인¹¹⁾ 도장(1호에 은행 확인 도장을 찍어줌)을 찍어 수요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즉시 지불서의 3호는 수요자 기업의 출금 통지서로 처리(은행에서는 3호를 찢은 후, 수요자 기업의 출금 내역서에 3호를 첨부하여 함께 내줌)하고 1호, 2호를 내주게 된다. 수요자 기업은 공급자 기업에 은행 확인이 된 즉시 지불서(1호, 2호)를 제시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로부터 받은 즉시 지불서(1호, 2호)를 공급자 거래 은행에 제출하여 대금 청구를 한다. 공급자 은행은 2호를 공급자 기업의 입금 통지서로 내주고, 수요자 은행에 결제 청구를 하여 입금 거래를 마감하며, 그 후 수요자 은행은 수요자의 보조 돈자리에서 자금을 차감하게 된다.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에서 고찰해 봐야 할 측면이 제기되게 된다. 수요자 기업의 돈자리 차감 후 공급자 기업에 즉시 지불서 제출 시 해당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즉시 지불서에

10) 홍영의, 「현시기 무현금 결제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4호, 2004, p.27.

11) 모든 은행 서류는 기관 도장과 은행 확인 도장이 찍혀야 결제 서류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밝혀져 있는 금액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거래 은행에 기본 돈자리 외에 보조 돈자리를 개설¹²⁾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내화 기본 돈자리와 관련한 회계 계산은 <내화 은행예금> 계정(162)에서, 내화 보조 돈자리와 관련한 회계 계산은 <기타 화폐 재산> 계정(164)에서 진행하게 된다. 은행은 수요자 기업이 즉시 지불서를 제출하면 은행 확인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기본 돈자리에서 자금을 출금시켜 보조 돈자리로 입금하며, 공급자 기업의 거래 은행에서 자금 청구를 해올 때 수요자 기업의 보조 돈자리에서 자금 출금을 한다.

즉시 지불서를 발행한 기업, 즉 수요자 기업의 이에 대한 회계 계산은 다음과 같다.¹³⁾

- 즉시 지불서를 발행하여 은행 확인을 받아 자금이 내화 기본 돈자리에서 출금되고
해당 금액이 보조 돈자리로 입금된 경우

차변 <164>(기타 화폐 재산) *** 대변 <162>(내화 은행예금) ***

-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사오고, 공급자 은행이 수요자 은행에 자금 청구를 하여 수요자
기업의 보조 돈자리에서 대금이 출금되어 결제가 완성된 경우

차변 <122>(조립용 설비 또는 비품) *** 대변 <164>(기타 화폐 재산) ***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방식의 편리성은 수요자 거래 은행과 수요자, 공급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은행의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 이들의 지급 관계가 은행 기관 상호간 관계로 바뀌게 되므로 대금 지불의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은행이 채무자 기업의 지급 의무를 수행하는 일도 없게 되어 은행의 경영활동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수요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지급 확인 후 상품을 가져오므로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게 되며, 공급자 기업으로서는 상품 공급을 통한 자금을 제때 받아 기업의 생산활동을 중단 없이 진행하게 된다.¹⁴⁾

즉시 지불서의 사용기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발행일로부터 90일이며 사용기간이 지난 서류는 은행 확인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거래 은행에 반납해야 한다.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는 무현금 결제의 기본방식의 하나로, 광범히 이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의 하나이다.

¹²⁾ 「화폐유통법」, 제30조,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92호로 수정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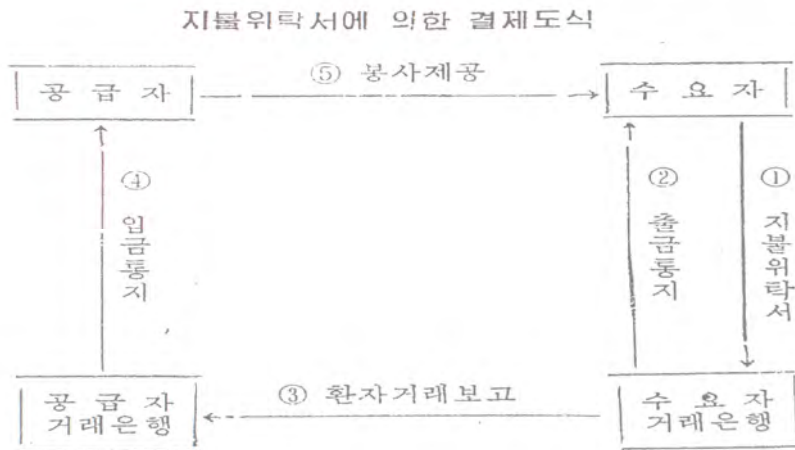
¹³⁾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년 1월, pp.118~119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¹⁴⁾ 홍영의 「현시기 무현금 결제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4호, 2004, pp.25~27.

IV.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는 수요자 기업이 자금 지불을 위탁하는 지불 위탁서를 자기의 거래 은행에 위임하여 공급자 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림 2]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의 도식



자료: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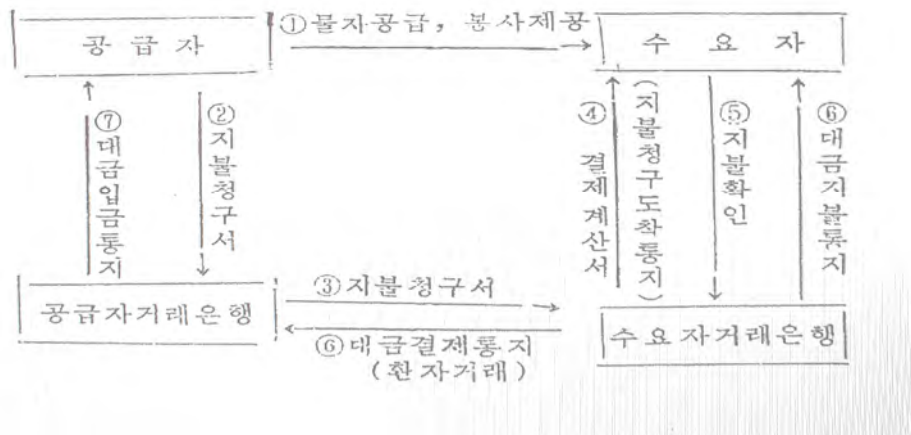
이 결제는 원칙적으로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 거래에는 이용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된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시제품의 대금을 물 때, 상급 기관이 아래 기관에 자금을 공급할 때와 아래 기관이 상급 기관에 자금을 올려 보낼 때, 먼저 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정산할 때, 가격을 잘못 적용한 것을 돌려줄 때 이루어 진다.¹⁵⁾ 즉,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는 사회보험료 지급과 같이 정기적인 금액이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외에도 즉시 지불서에 의한 결제로 인하여 기본 돈자리에서 보조 돈자리로 옮겨진 자금 가운데서 전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 돈자리에 남아있는 잔액을 월 또는 분기를 단위로 다시 기본 돈자리로 옮겨놓을 때에도 지불 위탁서에 의한 결제가 적용된다.

15)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재정금융사전』, p.1030.

V.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

지불 청구는 지불 위탁과 다른 의미이다. 지불 위탁이 ‘수요자 기업이 자기 거래 은행에 위임하여 공급자 기업에 지급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지불 청구는 ‘공급자 기업이 자기 거래 은행을 통하여 수요자 기업의 대금 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불 청구서는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 기업에 지급을 청구하는 결제 문서이며 이러한 청구는 해당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림 3]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의 도식



자료: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025.

지불 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주로 법적, 의무적 성격의 지급 거래에 적용되며, 따라서 “여기에는 위약금, 각종 사고 보상금, 포장 용기와 집합의 보증금, 연체료, 파손 보상금, 체차료¹⁶⁾(滯車料)”의 거래들이 포함¹⁷⁾된다. 대금 지불을 청구하는 공급자 기업은 물자 거래를 확인하는 결제 계산서, 사고 조서 등 근거 문건들을 붙여서 대금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16) 상하차를 제때에 하지 못했을 경우 수송기관이 화주(貨主)로부터 받는 금액.

17) 『재정금융사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025.

VI. 무현금 행표에 의한 결제

무현금 행표에 의한 결제는 수요자 기업이 무현금 행표를 발행하여 은행 확인을 받은 후 공급자 기업에 제출하면 그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제이다. 무현금 행표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무현금 내화 행표¹⁸⁾와 해당 상업은행에서 발행하는 무현금 외화 행표(외화 결제는 외화 예금 돈자리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보통 환치 결제, 외화 행표에 의한 결제, 신용장 결제, 카드 결제 등의 결제형식으로 진행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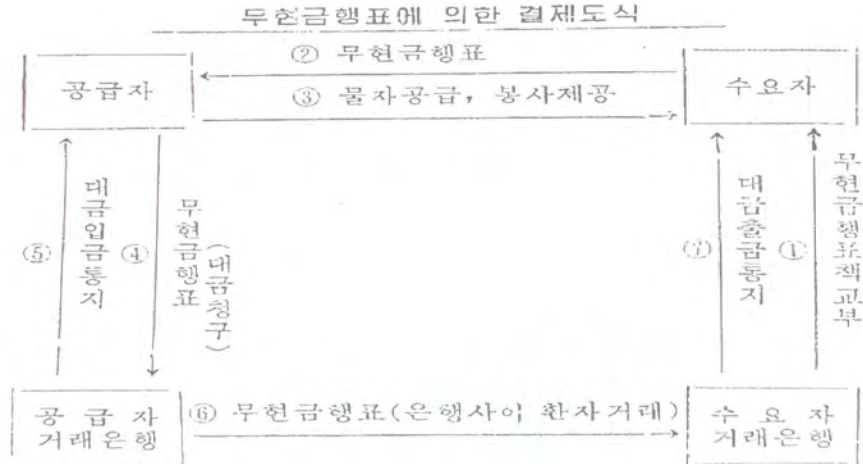
무현금 내화 행표는 주로 국가지표로 생산된 제품 구매에 주로 이용되게 된다. 국가지표로 제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일정한 몫의 국가지표 생산을 수행하면 같은 제품이라든가 나머지 몫은 기업소 지표로 생산된 제품으로의 처리가 가능하다. 즉, 기업소법의 제정으로 기업은 국가지표 생산품과 기업소 지표로 되는 시장 판매용 제품을 생산해서 이중으로 판매하게 된다. 예컨대 ‘국가지표로 국정 가격으로 나가는 제품은 질이 낮게 생산하여 수요자 기업, 즉 계획된 단위들에 무현금 행표로 처리 판매해서 계획을 수행하며 기업소 지표인 질 좋은 정상 제품을 기업소 가격으로 시장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다.¹⁹⁾ 이렇듯 내화 행표는 대체로 국가지표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게 된다.

상업은행에서는 금융기관 채산제에 따라 「무현금 외화 행표책」을 해당 거래 기업들에 판매하여 주며 이들이 거래 시 자기 거래 은행에서 판매한 외화 행표를 발행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기업은 결제에 요구되는 외화 금액에 해당 발행 날짜의 결제 환율을 곱하여 무현금 외화 행표의 외화 원 금액란에 기재하여 발행(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10달러인 경우 해당 날짜의 결제환율이 101.5이면 무현금 외화 행표는 금액란에 1,015 외화 원으로 발행한다) 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수요자 은행은 해당 기업의 돈자리 잔액을 확인한 후 행표의 이용 용도에 따라 행표를 구분(사무비, 연료구입비 등)하여 발행 확인을 해주며, 수요자 기업은 은행 확인이 된 무현금 행표를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 기업으로부터 받은 행표를 공급자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청구하며, 공급자 은행은 수요자 은행에 행표를 보내 상쇄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는 마무리된다.

18)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494.

19)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 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014 상반기 제26권 제1호(통권 제61호), 2014. p.182.

[그림 4] 무현금 행표에 의한 결제의 도식



자료: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495.

이 결제방법은 환치 결제(계좌이체 결제²⁰⁾)와 같이 결제 시일(보통 3~5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결제 확인도 따로 필요 없으므로 결제의 신속성과 거래의 간편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에 이용된다. 주로 제한된 범위에서 사는 소비상품, 경영용 연료유, 차부속품 등의 지급시 이용된다. 무현금 외화 행표의 사용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인데, 사용기간이 지난 행표는 무효로 되며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무현금 외화 행표에 의한 결제는 지급의 즉시성과 간편성을 보장하는 결제이므로 많이 이용되는 결제방법 중 하나다.

VII. 현금 행표에 의한 결제

현금 행표는 무현금 행표에 대응되는 결제 문서이다. 현금 행표는 기업이 은행예금 돈자리에 맡긴 돈을 현금으로 찾을 때 이용하는 서류로서 이것은 종업원들의 월급, 상여금, 각종 보조금, 출장비 등 현금을 내주어야 할 때 이용된다. 현금 행표의 발행 시 거래 내용은 반드시 현금계획에 반영²¹⁾되어 있어야 한다. 현금 행표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요구되는 현금액을 행표의 표면에

20) 북한의 외화에 대한 환치 결제는 수요자 기업이 자기의 거래 은행에 기관 도장을 찍은 「외화 지출 의뢰서」와 즉시 지불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1) 「화폐유통법」, 제12조에는 “현금계획은 해마다 인민 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항목별로 세운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혀져 있다.

기재하여 기업의 도장을 찍은 현금 행표와 현금 지불 신청서²²⁾를 은행에 제출한 후, 은행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날짜에 현금을 지불받게 된다.²³⁾ 현금 지불 날짜를 제정하는 것은 현금 유출의 중복과 복잡성을 피하려는 조치이다.

VIII. 신용장에 의한 결제

북한에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일반적으로 국외 거래에 따르는 대금의 지급 시에 이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허가된 무역회사만 무역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무역법의 제정으로 현재는 무역 영업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이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신용장에 의한 국제 결제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입자 거래 은행이 수출자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결제방식이다. 북한에서는 국제 거래에서 지불 청구서에 의한 국제 결제(수체 결제²⁵⁾)외에도 신용장 결제를 국제 결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 결제는 무역은행을 통해 청산 결제²⁶⁾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대외 결제는 구소련의 루블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이후 북한의 대외 결제는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환 결제²⁷⁾(경화 결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1992년 1월 북·중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과의 결제에서도 환 결제방식을 도입하였다.²⁸⁾ 그러나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대외 결제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었다. 환 결제 시스템하에서 환거래은행들은 신용장 거래, 송금 환, 추심 환 등 외국 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상호 교신할 수 있는 국제 간 통신수단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사용하게 된다. 북한은 2001년 SWIFT에 가입한 후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을 포함하여 19~20개의 금융회사가 SWIFT 네트워크를 활용하였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2017년 2월에는 동방은행, 대성은행, 광선은행이, 3월에는 조선무역은행, 고려신용은행, 금강은행, 동북아은행 총 7개 북한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 SWIFT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신문 전송 건수는 2012~13년 중

22) 「화폐유통법」, 제19조,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 보충.

23) 「화폐유통법」, 제20조,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 보충.

24) 김일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정책」, 통일교육원, p.51.

25) 수체 결제는 수출자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서 받은 결제문건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입자 거래 은행에 발송하여 수입자의 확인을 받아 수입자의 돈자리에 해당한 지급 금액을 공제하고 수출자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자의 돈자리에 대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제이다.

26) 청산 결제방식은 대금 결제를 건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장부상 결제를 한 후 남은 차액에 대해서만 경화로 결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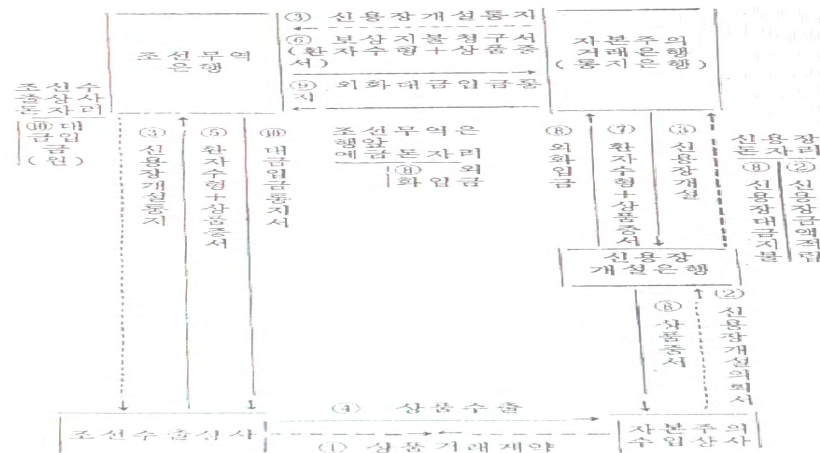
27) 환 결제는 무역 대금의 결제를 신용장(Letter of Credit/L/C), 송금 환(remittance bill), 추심 환(collection)에 의해 결제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28) 박해식·이병윤,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p.42.

2,000건 이하로 급감하였는데, 이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우세²⁹⁾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스마트제재에서 북한경제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재로 변경되었으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커져 환 결제방식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³⁰⁾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의 환 결제방식은 대부분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이였다. 그러나 1987년 북한의 채무불이행 이후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도 거의 사라지고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환 결제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대북제재의 강화로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 방식의 결제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그 비중이 감소하고 송금환 결제방식의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광물 거래에 대한 대금 결제의 70~95%가 송금환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임수호 · 양문수 · 이정균, 2017)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과 2015년 북한인의 중국 내 은행 계좌 개설이 통제되고 2017년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인들의 신규 계좌 개설은 물론 기존 계좌까지도 폐지되면서 중국계 은행을 통한 송금환 결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된 결제는 은행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송금환 결제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는 비공식 현금방식으로 전환³¹⁾되었다.

[그림 5] 신용장에 의한 결제의 도식



자료: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802.

29) 박해식 · 이병윤,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p.93.

30) 박해식 · 이병윤,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p.64.

31) 박해식 · 이병윤,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p.43.

IX. 현금 결제

북한에서는 기업의 현금 돈자리 도입을 통해 기업의 현금 보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지표가 국가 주요 부문에서 기능하고 있다.³²⁾ 국가지표 외에 기업소 지표 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현금 돈자리를 통한 현금 거래를 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라 현금을 이용한 지역시장에서의 원자재 구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은 현금 형태의 유희화폐 자금(현금 형태의 유희화폐 자금에는 주민과 기관, 기업 유희화폐 자금이 속하며 무현금 형태의 유희화폐 자금에는 기관, 기업 유희화폐 자금만이 속한다.³³⁾)을 이용하여 시장을 통해 원자재를 구매하고 구매가격에 기초하여 원가를 계산³⁴⁾하고 있다. 시장가격 거래활동과 국내 외화가격 거래에 따른 자금의 수입 지출은 기존 은행의 기본 계좌와는 별도로 각각 현금 내화 계좌와 현금 외화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³⁵⁾

현금 돈자리의 개설은 기업소 지표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소 지표가 도입되면서 현물지표에 해당하는 중앙지표의 비중이 30%로 많이 축소되고 액상 계획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업소 지표에 대하여 현금 돈자리를 통해 기업 간 자금 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³⁶⁾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시장가격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강경희(2019)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통규모가 더욱더 줄어들고 무현금 유통 규모가 더욱더 늘어나며 생산물 유통의 더 많은 부분이 무현금 유통으로 실현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는데,³⁷⁾ 이것은 현금 유통의 증대로 시장의 제도권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금 결제는 무현금 결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거래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현금 유통의 실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소 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문계약 후 상품을 생산하고 현금 돈자리를 통한 환치 결제를 진행하도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³⁸⁾ 현금결제는 기업체들 사이 주문계약에 의한 거래, 주민과 상업 및 편의 서비스 기관 사이의 소비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현금계획에 반영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수입이

32)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2021-6호(통권 제61호), p.31.

33) 김관국, 「유희화폐 자금의 형태」, 『경제연구』, 제3호, 2019, p.48.

34) 김혜경, 「기업체들에 부여된 가격제정권을 활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 2020, p.48.

35)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889, p.262.

36)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889, pp.265~266.

37)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60.

38)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pp.274~275.

없으면 지출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율을 세우고³⁹⁾ 시행하고 있다. 현금 돈자리에서는 비록 어느 정도 제약은 있으나 현금 출금이 가능하며 다른 계좌로의 송금(환치)도 가능하게 되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조선중앙은행의 문건에서는 기존의 월 2만원의 현금 인출 한도를 기업체의 현금 돈자리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특히 기업소 지표 등 기타 지표의 경우에는 ‘주문계약’임을 명시하고 가격 및 계획등록번호만 표시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⁰⁾ 또한 현금 돈자리에 장기간 예치된 현금 중 저축성예금 부분에 대해 2014년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치 수수료를 0.5%로 적용하고 현금 출금 수수료도 업종(생산 부문 3%, 상업 부문 1%, 자동차와 선박, 편의 부문에 대해서는 5%의 출금 수수료를 적용⁴¹⁾)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체제 유지 차원에서 거액 현금(100만원 이상)의 경우 3일 전에 현금 신청서를 제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⁴²⁾

39) 김성철, 「현금계획의 작성과 집행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2019, pp.56~57.

40)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p.282.

41)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p.283.

42)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p.284.

참고문헌

-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 김관국, 「유휴화폐 자금의 형태」, 『경제연구』, 3호, 2019.
-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2021-6호(통권 제61호).
- 김성철, 「현금계획의 작성과 집행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2019.
- 김일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정책』, 통일교육원, 2019.
- 김혜경, 「기업체들에 부여된 가격제정권을 활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 2020.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2021. 9. 3.
- 박해식·이병윤,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년 8월.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 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년 1월.
- 『조선일보』, 「[NK 리포트] 북한 주민들 공식 업무엔 꼭 도장 사용」, 2001. 6. 17.
-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 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014 상반기 제26권 제1호(통권 제61호), 2014.
- 홍영의, 「현시기 무현금 결제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 2004.
- 「기업소법」, 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 보충.
- 「화폐유통법」,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 보충.